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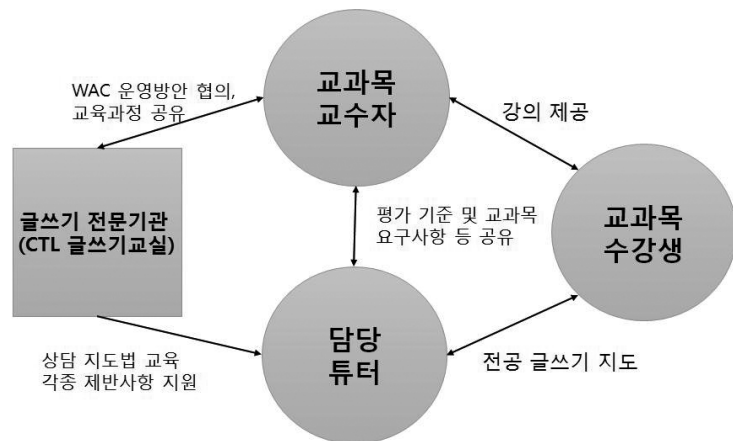
## 전공 글쓰기 능력 함양 프로그램

: 교과 연계 글쓰기 지도

(SNU-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층에 들어오면 노란색 바탕에 ‘WAC 프로그램 상담실’이라고 적혀있는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 상담실은 학기별로 평균 100~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상담실을 이용해봤거나 현재 이용 중인 사람 외에 교내에서 WAC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학년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매학기 개설되는 수천 개의 교과 중에서도 현재까지 23개 교과만을 대상으로(2018년 1학기 현재 운영 10개 교과 포함)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프로그램이란 학내 글쓰기 교육기관과 해당 교과목(교수자)이 협업하여 교과 맥락에 특화된 글쓰기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교과 수강생들의 전공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교과목과 연계하여 교과 수강생에게 글쓰기 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WAC 프로그램 운영 관계도

안 해 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글쓰기교실은 학내 글쓰기 전문기관으로서 학기별로 WA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적합한 교과를 선정하며, 선정 이후에는 교과 맥락에 적합하도록 글쓰기 상담 및 특강 계획을 교수자와 협의한다. 또한 교과목 글쓰기 튜터링에 적합한 튜터를 담당 교수자로부터 추천 받거나 선발하여 매칭한다. 튜터는 해당 전공의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글쓰기 튜터링 경험을 갖고 있으며, WAC 운영 교과의 맥락을 교수자와 함께 공유하고 글쓰기 과제 작성시에 교과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들을 글쓰기 지도에 반영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전공과목별로 부과되는 글쓰기 과제 특성에 맞추어 튜터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학 전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 글쓰기 교과와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글쓰기교실에서는 상시적으로 글쓰기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나 WAC 프로그램의 튜터는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도움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WA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수강생은 교내에서 누구보다도 양질의 글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WAC 프로그램이 학내 전반에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및 튜터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는 WAC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방증한다. 교과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2017년 2학기 WAC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4점(5점 척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WAC 프로그램을 통해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법’, ‘아이디어 수집방법 및 주제 선정과 개요작성법’, ‘자료를 찾고 해석하는 방법’ 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동 학기에 참여하였던 WAC 튜터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이미 학부과정에서 수강한 해당 분야의 전공생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글쓰기 방식, 대략적인 배경설명이 가능했다’는 의견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 의견 조사에 따르면 튜터와 수강생이 같은 전공의 선후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중에 글쓰기 상담 이외에도 진로 및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며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얻기도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WAC 프로그램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이용하는 장소가 교수학습개발센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많은 학생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교과와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각 단대 혹은 학과에 WAC 전용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편이 좋겠지만, 현

재로서는 학과 수준에서 보더라도 극히 일부의 교과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된 지도 내용이 교과목에서 부여하는 글쓰기 과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였던 모든 교과에서 과제 제출일 마감 직전에 상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담당 튜터의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교수자가 WAC 상담이용이 의무 사항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상담을 미처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교실 담당자와 튜터, 교과목 교수자가 수시로 상담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진도율, 학생 일정의 문제 등과 결부되는 학기 중 과제물의 특성상 마감 전에 집중되는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교과에 확대·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소 제공의 문제와 튜터 부담의 완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해외 여러 대학들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서울대학교에서도 WAC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로서 서울대학교 학술글쓰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 분야의 학술 글쓰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목 교수와 글쓰기 튜터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 전공생은 ‘글’로써 대화하고 상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C는 그동안 유리되었던 학문 공동체간에 깊이 있는 학문적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대학원생 역시 글쓰기 튜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WAC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내 교육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SNU학습유형검사

박 소 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이 현 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SNU학습유형검사는 2011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서울대 교육학과 신중호 교수 연구실에서 공동 개발한 검사도구이다. 이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학습태도 개선 및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검사도구이다. SNU학습유형검사는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16가지의 학습유형을 결과로 제시하여 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은 학습상담 전 학습유형검사 검사를 통해 학습유형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SNU학습유형검사는 교수학습개발센터(CTL)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이용 기능 개선 및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2017년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러닝콘텐츠개발부와 협력하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SNU학습유형검사 개편

#### 디자인 리뉴얼 및 UI(User Interface) 개선

서울대학교에 잘 어울리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시인성과 가독성 향상에 초점을 둔 배색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용자들이 SNU 학습유형검사 본연의 목적인 학습전략 수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 수립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형태로 처음부터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다.